

中, 희토류 日 수출금지 李엔 “전략적 소통 강화”

모든 이중용도 품목 對日 수출금지
중국산 물자, 日 제공 타국도 제재

李, 리창-자오리치 등과 연쇄회동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를 만나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와 한국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서열 3위인 자오리치(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와와의 오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리 총리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對(對)한국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두 나라 정상 간의 전략적인 지도하에 중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이유로 일

?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
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이다.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과 관련된 물자가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의 일환으로 이중용도 물자·기술·서비스의 해외 수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및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본 수출 통제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이중용도 물자는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으로 희토류와 희귀 광물을 포함한다. 특히 일본 군사력 향상과 관련된 사용자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본 첨단 제조업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일본에 초강경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중국이 한미일·한일 갈라치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부는 이날 조치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베이징=박훈상 기자 tiger_mask@donga.com /
신규진 기자 /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A3·4면에 관련기사

K휴머노이드 로봇, 출근하고 집안일 맡는다

〈현대차 ‘아틀라스’〉

〈LG ‘클로이드’〉



견고, 집고, 일하고
일상 스며드는 로봇

‘일하는 로봇’이 현실화되고 있다. 휴머노이드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5일(현지 시간)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CES 무대 휩쓰는 피지컬 AI

현대차 ‘아틀라스’ 2년뒤 현장 투입

LG 가사로봇 공개… 中도 ‘로봇군단’

사람처럼 움직이고 인공지능(AI) 두뇌를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을 휩쓸었다. 올해 휴머노이드가 ‘로봇 일꾼’으로서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실제 투입되며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CES 2026 미디어 데이와 열고 휴머노이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생산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할 계획이다. 처음엔 부품 분류 등 단순 작업으로 시작해 2030년부터는 조립까지 맡긴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첫 대량 생산 휴머노이드로 아틀라스를 낙점했다.

이날 LG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공개했다. LG전자는 클로이드와 AI 가전을 융합시켜 인간이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는 ‘제로레이버 홈(Zero-Labor Home)’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도 CES에 ‘로봇군단’을 내보내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휴머노이드를 강조했다. 황 CEO는 이날 라스베이거스 폰테블로 호텔에서 ‘엔비디아 라이브’를 열고 휴머노이드 2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는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이라며 “AI가 텍스트나 영상이 아니라 물리적 실제 속 인간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CEO는 지난해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차세대 물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라스베이거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A8·B3면에 관련기사

케빈 김 대사대리 70여일만에 돌연 美복귀

한반도 실무총괄 맡을듯… 대사는 공석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부임 70여일 만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임한 김 대사대리가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후 1년간 이어진 주한 미대사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수의 미국 소식통은 이날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에 따라 대사대리직은 당분간 제임스 웰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이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대리는 올 초부터 본격 화될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실무협상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귀임하면서 대사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호주 기자

▶A4면에 관련기사

쇠사슬 차고 美법정 선 마두로 “난 납치돼 잡혀왔다”

마두로 부부 첫 출석 뉴욕 법정 현장
뒷자리엔 美마약단속국 10여명 배치

“나는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이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이곳에 납치돼 잡혀 왔다.”

5일 낮 12시(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26층 A법정. 이틀 전 미국의 ‘확고한 결의’ 작전 16시간 만에 자국에서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92세의 베테랑 미국인 판사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발목에는 쇠사슬을 찬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가 질문할 때마다 일어서서 대

답하고 답변이 끝나면 앉기를 반복했다. 바로 뒷자리에는 10여 명의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이 앉아 그를 감시했다. 그는 마약과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마두로는 이날 정치적 동반자인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미국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헬기로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 폴리탄 구치소에서 맨해튼으로 호송된 뒤 장갑차를 타고 오전 7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선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반(反)마두로와 “미국은 남미에서 떠나라”고 외치는 이들이 대치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A2면에 계속

4300→4400→4500

3일 연속 천장 갯 코스피

B1면

코스피가 사상 첫 4,500을 돌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새해 첫 3거래일간 311.31포인트(7.4%) 상승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날에 이어 ‘13만 전자’를 지켰고, SK하이닉스는 ‘70만 닉스’로 올라섰다. 매일 백 단위 숫자를 갈아치우는 팔리에 코스피는 10%가량만 더 오르면 전인미답의 5,000을 달성하게 된다.

운동을 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
겨울에도 더 건강해지는 방법
제일 리:핏 케어 맞춤방문운동

안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규칙적으로 저항성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 집에서 편하게, 건강 운동 전문가에게 1:1 맞춤 방문 운동 또는 그룹운동을 받아보세요

건강 운동 전문가
제일리핏케어 방문재활운동팀
김정환 팀장

제일정형외과병원 병원장
제일리핏케어 홍보대사
신규철 박사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로 에너지 생성에 도움
- 활성산소 생성을 줄여 세포 손상을 막는데 도움
- 인슐린 감수성 개선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
- 뇌혈류 증가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
- 근육 증가로 관절을 지키는데 도움

청담 제일정형외과병원 협력, 시니어 전문 재활운동센터

제일 리:핏 케어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6, 4층
청담역 14번 출구 앞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 내 몸에 맞는 1:1 개별 맞춤 운동
- ☑ 친구·가족과 1:2, 1:3 실속있는 그룹 운동

맞춤 방문 운동 | 청담동 본원 센터 운동

02.542.2488